



필리핀 투자 뉴스

2009. 5.29, Bi-Weekly, No. 21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마닐라

Focus

필리핀 재벌 기업 구조와 동향 (대표 기업 4선)

경제 통상 정보

필리핀 진출기업 수출인센티브 요건 완화: 경기 침체 반영 수출 비중요건 완화, 고용 창출 기업에 혜택 부여

투자 Project 정보

Mindoro 풍력발전 Project

Luzon Landfill Gas Project

Visayas 바이오매스 에너지 Project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1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2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Magnetite/Iron/Ferronickel Opportunities)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소 Project

전문가 칼럼

필리핀 수출입 물류 ABC: 발생 비용, 루트와 품목별 수출입 승인

필리핀에서 토지거래 시 유의사항: 등기확인고 기타 유의사항

경제 단신

필리핀 10년 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100억불 투자

마닐라 시내, 정유사 등 중화학공업 지속 허용키로 결정

한국기업, 필리핀 바이오연료 프로젝트에 4.75억 달러 투자

일본 Sumitomo Metal Mining사, 내년도 30억 달러 규모 니켈가공공장 건설

NGCP & Siemens, Tarlac 지역 송변전 프로젝트 완료

SEC(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 DTI 산하로 전환

투자진출 A to Z

필리핀 내 고용관련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요 경제 지표

해외투자진출 관련 안내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안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법률회계 고문 무료 상담

무역투자 정보포털(Global Window) 안내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Focus

필리핀 재벌 기업 구조와 동향 (대표 기업 4선)

□ 필리핀 경제는 스페인, 미국의 식민지 시절 이후부터 재벌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바, 이들 기업의 지배 및 사업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필리핀 비즈니스 구조를 파악하는 핵심요소임. 이에 주요 기업들의 지배 및 사업구조를 살펴보고자 함.

□ San Miguel Corp. (식음료, 에너지, 인프라)



Eduardo Cojuangco Jr.

- San Miguel Corp. 회장
- 1935.6.10일생
- San Beda College, De La Salle Univers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ños and California State College
- Eduardo Cojuangco Jr. 재산 US\$6.1억 달러로 필리핀 내 부호 순위 7위(Forbes지)

- 1890년 설립된 동남아 최대 식음료 기업인 SMC는 세계 3대 맥주로 불리는 San Miguel 맥주를 비롯, 각종 식음료 제품을 생산하여 필리핀 국내는 물론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세계 60여 개국으로 수출중임.
- SMC 사업 플랫폼은 주류(맥주, 위스키), 음료, 식품가공, 포장재(유리, 금속, 플라스틱, 종이, Laminates 재질) 등임.
- 이중 특히 San Miguel 맥주의 필리핀 내 맥주 시장 점유율은 95.6%(2008년 기준) 로 압도적, 2008년 맥주 총 생산량은 전년비 3.6 Mcs(또는 0.2 Mn HL) 늘어난 199.7 Mcs(또는 15.3 Mn HL). 필리핀의 맥주 시장 규모는 동남아내 태국, 베트남에 이어 3위 규모임.
- SMC는 2007년 전년비 11% 증가한 1,680억 페소 매출을 기록했으며, 순이익도 193억페소로 전년비 124% 이상 증가. 그러나 매출 및 순이익 증가는 자산 매각에 따른 것이며, 경기체로 식음료 사업 매출은 예상보다 저조

<SMC 경영실적>

(단위: 백만페소)

	2008	2007
For the Year		
Sales	168,041.00	148,022.00
Income from Operating Activities	14,670.00	8,079.00
Net Income	19,348.00	8,630.00
At Year End		
Total Assets	339,373.00	288,109.00
Stockholder's equity	149,917.00	134,764.00
Number of Stockholders		43,234
Number of Employee	15,344	15,252

자료: www.sanmiguel.com.ph

- SMC는 기존 식음료 사업 확대와 함께 최근 들어 에너지, 은행, 통신, 부동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에너지, 인프라 분야 투자 추진. 2007년 이후 Petron Corp.(필리핀 최대 정유사) 및 Manila Electric Co.(필리핀 최대 배전 기업)사의 지분 인수. Ashmore Group과 옵션 계약 통해 Petron Corp. 지분 50.1% 인수. SMC 는 Petron Corp 지분 인수후 휘발유내 옥탄가 인하를 통해 가격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Ang 사장은 Tarlac-La Union Tollway 프로젝트 참여에도 관심 표명, 이외 해외 진출에도 관심. 인도네시아 최대 화력발전소 지분의 17%(5억 달러) 인수 등을 검토중임.
- 통신 분야 진출을 위해 2009.5월, Qatar Telecom QSC와 Liberty Telecommunications, Inc., 사의 지분 16.3%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Wireless Broadband 사업 진출한다는 계획임.
- 한편 SMC는 일본의 대표적인 맥주기업인 Kirin Holdings Co.와 MOU체결, Kirin 사가 San Miguel Brewery Inc.사의 지분 43.25%를 인수함으로써 최대 주주로 등극했음. Kirin은 중국 동남아지역에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SMC 유통망을 활용해 자사 제품의 시장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임.

□ Lopez Group of Companies (전력, 통신)

- 마닐라 일대 배전전문기업인 Meralco를 소유한 Lopez 그룹은 대표적인 전력 재벌로 통신, 부동산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Oscar Lopez

- Lopez 가문 총자산 US\$2.4억 달러로 필리핀 내 재산 순위 16위 (Forbes 지 선정)
- 1993년 전력, 방송, 통신, 부동산 분야 사업 수행을 위한 지주회사, Benpres Holdings Corporation 설립



- Lopez 그룹이 진출해 있는 사업 분야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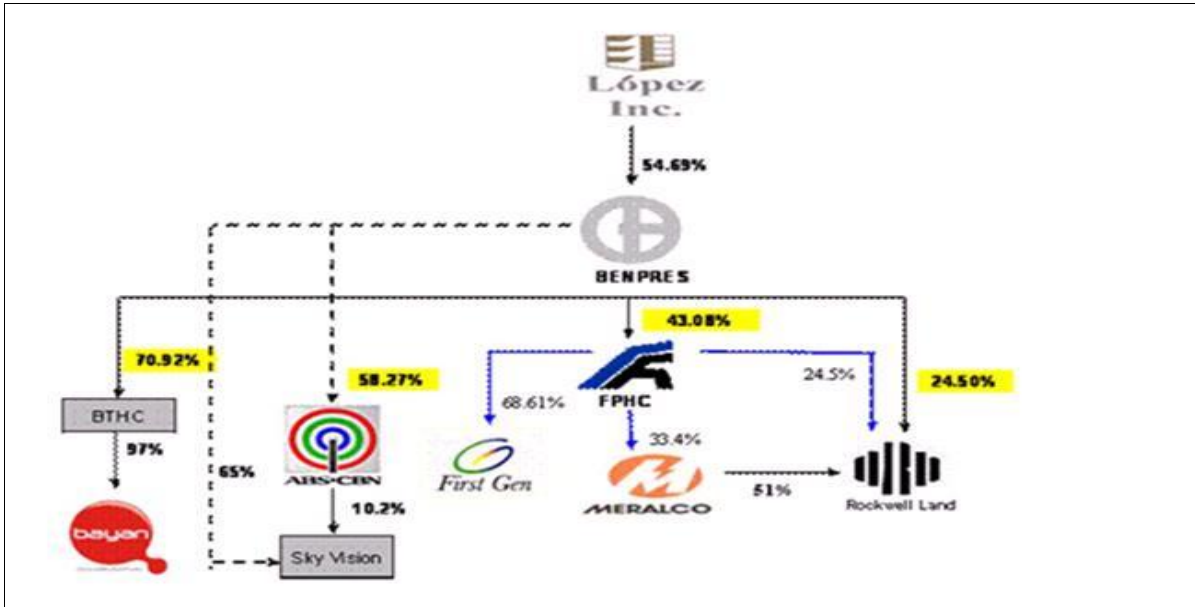
사업분야	자회사
통신	- ABS-CBN Broadcasting Corp. (TV 방송, 공중파) - Bayan Telecommunication Inc. (휴대전화서비스) - Sky Vision Corp. (케이블 TV)
전력, 에너지	- Manila Electric Company(Meralco)- 배전 - First Philippine Holding Corp. - 발전 - First Generation Holding Corporation - 발전
부동산	- Rockwell Land Corporation - 부동산 - First Philippine Infrastructure - 인프라

<'07~'06 년 Benpres Holdings Corporation 경영현황>

(단위: 백만페소)

	2007 년	2006 년
Total Revenue	19,891	17,020
Total Net Income	5,928	4,702
Total Asset	48,329	47,937
Total Equity	16,134	13,584

자료: Benpres Holdings Corp. Annual Report 2007



참조: BTHC-Bayan Telecommunication Holdings Corp., BTI-Bayan Telecommunication Inc.

FPHC-First Philippine Holdings Corp.

자료: www.benpres-holdings.com

- 기타 자회사: First Balfour, Inc.(건설), Philippine Electric Corporation, First Electro Dynamics Corporation, First Sumiden Circuits, Inc.(이상 제조), Securities Transfer Services, Inc.(주식거래), eLopez, BayanTrade DotCom, Griffin Sierra Travel Inc.(이상 투자)

□ SM Group of Companies (유통, 금융)



Henry Sy Sr.

- SM Group of Companies 회장
- 1924.10.25일생
- Far East Univ. 학사(1950년)
- La Salle Univ. 명예박사(경영학)

- 1946년, Quiapo 에서 신발점포로 사업을 시작, 유통부문 필리핀 최대 기업으로 성장
- SM Prime Holdings의 소유주 Henry Sy 와 그 일가의 보유자산 평가액은 2008년 기준 US\$31억 달러로 필리핀 부호 순위 1위에 올랐으며 전년도 14억 달러 대비 두배 가까이 증가. 2008년 SM Prime Holdings 수익은 전년비 12% 증가한 178억 페소(약 US\$4억 달러)
- 현재 33 개 쇼핑몰, 33개 백화점, 46개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 15개 할인매장운영 중

- 과거 서민층을 공략하는 기존 대형 쇼핑몰 중심에서 서비스와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한 고급 쇼핑몰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이는 과거 규모 중심의 쇼핑몰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SM Prime Holdings 의 의지로 평가됨.
- 이외 금융업계 3위 은행인 Banco de Oro 및 China Bank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광 분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음.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필리핀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경영을 통해 사업 영역 확장 지속
- SM Investment Corp.가 소유한 Banco de Oro는 Equitable PCI Bank와 합병 이후 새로운 시장 공략 및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SM Development Corp.은 Sucat 및 Paranaque 지역에 각각 주거용 콘도를 준공, Cebu 내 500개 객실을 갖춘 5성급 호텔도 오픈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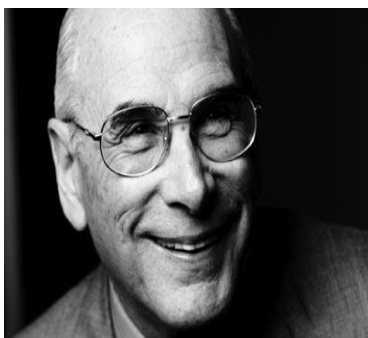
(단위: 백만페소)

	2008	2007	변동율(%)
Revenues	17,839	15,970	12%
Operating Expenses	8,208	7,139	15%
Operating Income	9,631	8,830	9%
Net Income	6,412	5,972	7%
EBITDA	12,297	11,330	9%

주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of Amortization)

자료: SM Prime Holdings webpage

□ Ayala Corporation (부동산, 통신, 금융)



Jaime Zobel de Ayala

- Ayala Corp. 명예회장
- Ayala 및 가문 총자산 US\$12억 달러로 필리핀 내 자산 순위 3위 (Forbes 지 선정)



Jaime Augusto Zobel de Ayala II

- Ayala Corporation 회장 및 CEO
- 1959년생
- Harvard 학사(1981), Harvard MBA(1987)

- 1834년 도밍고 로하스와 아얄라가 공동 설립한 기업으로 175년의 역사 자랑. 최초 중소 회사로 출발, 설탕사업으로 초기 자본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Makati 비즈니스센터 조성 and Alabang 조성을 통해 부동산 재벌로 성장
- Zobel de Ayala는 1983~2005년간 Ayala Corporation 회장으로 재직, 2006년 Jaime Augusto Zobel de Ayala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활동중임.
- 1940년대 한국의 강남구라 할 수 있는 마카티 지역 개발을 시작. Forbes Park, Dasmarinas Village, Bel-Air Village, San Lorenzo Village, Urdaneta Village, Magallanes Village 등 고급주거 단지와 Ayala Center(구 Center of Makati) 등 상업지구를 개발. 동 지역은 현재 필리핀 최대 비즈니스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음.
- Ayala Corp. 사업 플랫폼은 부동산개발(Ayala Land), 금융(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필리핀 3대 은행), 유무선통신(Globe Telecom), 인프라(Manila Water), IT(Integrated Microelectronics, Azalea Technology Investments), 자동차 판매(Ayala Automotive Holdings Corporation), 창투사(AG Holdings Ltd), 등임.
- 2007년, Ayala 가문은 SM Prime Holdings의 Henry Sy 가문과 함께 필리핀 최고 부호로 선정된바 있으며(단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으로 3위 기록),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음.

<Ayala 그룹의 자회사별 Equity in Net Earning>

(단위: 백만페소)

	2008	2007	변동율
Ayala Land	2,538	2,437	+4%
BPI	2,144	3,379	-37%
Globe Telecom	3,667	4,545	-19%
AC Capital	(527)	1,454	-136%
IMI	(487)	1,303	-137%
Manila Water	922	720	+28%
Ayala Automotive	280	388	-28%
AG Holdings	(361)	230	-257%
Azalea (includes Livelt and HRMall)	(947)	(1,581)	40%
Others	65	394	-84%

자료: www.ayala.com.ph

▣ 경제 통상 정보

필리핀 진출기업 수출인센티브 요건 완화

- 경기 침체 반영 수출 비중요건 완화, 고용 창출 기업에 혜택 부여 -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산하 투자위원회(BOI)는 주로 제조기업에게 부여해온 수출 인센티브 요건을 2년간 (2008~2009년) 완화한다고 5.28일 공표 (Board Resolution No. 12~15)
 - 최근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를 반영, 필리핀 국내 및 진출 외국기업들이 수출 비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세 면제 등 기존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
 - 현재 제조수출기업으로 필리핀 투자유치 기관들(BOI, PEZA 등)에 의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전체 매출의 필리핀 현지 기업은 50%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은 7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해야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되고 있음.
- 2009 IPP(Investment Prioriteis Plan) 에도 동 규정은 동일하게 적시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비중 요건의 2년 유예를 공표하고, 수출기업이 아닌 기타 BOI 등록기업의 경우도 법인세면제 인센티브 사용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
 - 필리핀 BOI(Board of Investment)는 매년 투자유치 중점 분야 및 인센티브 계획을 심의, IPP로 발표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제조업의 수출 비중 요건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해당기업이 동 인센티브를 계속 수혜키 위해서는 수출 비중 감소가 세계 경기침체에 기인한다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즉 작년말 본격화된 세계 금융 위기 이전까지 수출실적이 양호했다는 과거 실적 등 수출 감소가 경영 부실이 아닌 세계 수요 감소에 기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업만 인센티브를 계속 수혜할 수 있다는 것
 - 제출 필요서류는 재무재표, 생산, 판매 실적,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확보 곤란, 주문 취소 서류 등임.
- 수출 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 표명. 필리핀 수출연합회 Ortiz-Luis 회장은 이번 조치로 업계의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필리핀 1/4분기 수출은 79억달러로 전년동비 대비 37%나 감소한 상태임.

□ 한편 2009 IPP에는 처음으로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한다는 조치를 5.21일부로 발효시킨바 있음.

-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

□ 2009년 IPP에 인센티브 부여 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된 업종은 아래와 같음.

- 탄소배출권 판매 창출 가능 프로젝트 투자 기업
- 바이오테크놀러지 벤처
- 선박 구조 인양 사업
- 관광객을 위한 홈스테이 체인사업
- IT 서비스
- 에너지 효율 전등 제조
- TV, 영화산업 (주로 내국기업 대상) 등

▣ 투자 Project 정보

- 하기 프로젝트는 CDM 프로젝트 Developer 인 CAFIS, CNet Business Consultancy Services 와 협력,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 신뢰성과 KOTRA 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Mindoro 풍력발전 Project

Executive Summary

HES 'Code Name', is developing a 15 MW Wind Energy Power System(WEPS) Project(the "Project") at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that will supply electricity to Oriental Mindoro Electric Cooperative, Inc.(ORMECO) as the primary off-taker, and to Occidental Mindoro Electric Cooperative, Inc.(OMECO), a potential secondary off-taker in the project expansion phase. The WEPS Project will supply approximately 23% of Oriental Mindoro's annual demand starting in 2009. HES plans to complete development of the Mindoro WEPS Project in 3Q2008, and achieve commercial operation in 3Q2009. The Project will supply 38-42,000 MWh per year to ORMECO, and potentially 15-16,000 MWh per year to OMECO in the future, via the NPC-SPUG 69 kV sub-transmission line at a net price less than PHP 5.00/kWh, which is PHP 1.30/kWh less than the Subsidy Approved Generation Rate (SAGR) and~PHP3.30/kWh less than the True Cost Generation Rate(TCGR) of diesel energy.

- HES has signed a Production-sharing Contract for OSW Energy Resources - Pre-Commercial Contract with the Department of Energy on April 9, 2004, granting HES the exclusive right to develop a wind power project at the Puerto Galera site.
- HES has established the availability of economically developable wind resources at the Puerto Galera site. Wind data recorded over a 2-year period indicate good wind conditions with an average annual wind speed >7.0 m/s at 30 meters. HES's wind resource assessment has been reviewed and confirmed by an independent Consultant.
- Two (2) 60-meter meteorological towers were installed in November 2007 at the Puerto Galera site. Wind data recorded by the two met towers during the first 5 months confirm average wind speeds >8.0 m/s at hub-height (60 m).
- BreezElectric has completed an optimum WEPS design for Mindoro which utilizes the most appropriate wind turbine technology for that site. The wind turbine units are pitch-controlled,

- the 25-year ORMECO Energy Sales Agreement (ESA) was signed in April, 2006. The net Tariff of ~PHP 4.90/kWh (including the Interconnection Fee) is substantially less than the SAGR (~PHP 6.20/kWh) and the TCGR of DG energy (>PHP 8.00/kWh).
- HES and NPC-SPUG negotiated and signed the Transmission Services Agreement (TSA) in 2Q2007.
- HES has obtained Local Government Unit (LGU) endorsements and approvals for the WEPS Project in Puerto Galera in 2007.
- The Board of Investments (BOI) has approved and registered the Mindoro WEPS Project as a priority pioneer project in June 2007. Wind energy development is a priority investment under the BOI 2004 Investment Priority Plan, and upon registration with BOI, is entitled to the financial and other incentives.
- The Initial Environmental Examination(IEE) of the Puerto Galera WEPS site was completed. The Environmental Certificate of Compliance was issued by DENR in October 2007.
- BreezElectric LLC, HES's parent company, has signed and executed a Letter of Intent (LOI) in June 2007 with a Local Partner for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phase of the Mindoro Wind Project.

Luzon Landfill Gas Project

Project Name	Landfill Gas to Power
Country	Philippines, Luzon
Project Background	The landfill owners are looking for a Build-Operate-Transfer(BOT)/Build-Own-Operate(BOO)/performance contracting type of agreement for the engine-generator system that will supply power to the grid; a local company will operate the facility. The owner has commissioned a similar project in the Philippines that is now operational.
Project Type	Renewable Energy/Biogas
Project Scope	Initially designed for 4-MW Capacity, up to 6-MW in the future
Emission Reductions	Estimate: 18,000t/yr(grid) for 4MW Methane emission avoidance t.b.d.
Funding Method	Estimate: Capital cost for 4MW equipment US\$6.65 Million
Project Details	4 sets of 1MW engine-generators. Customer is considering Jenbacher or Waukesha reciprocating engines or Capstone Microturbine technology. The balance-of-Plant(BOP) such as the digester system and electrical system are excluded from this request.

Visayas 바이오매스 에너지 Project

In response to the adverse impact of a power shortage, AOPC 'code name' will establish a 23-MW "clean" energy base load to augment the precarious supply from the electric cooperatives.

After winning a bid for 25 MW capacity out of 90 MW being offered by the Panay-Guimaras Power Supply Consortium, AOPC shall construct and operate 7 power plants in 5 provinces in Western Visayas to supply electricity to 7 electric cooperatives (EC) using biomass mainly rice straw and rice husk as feedstock.

Our confidence level in the sustainability of supply of our feedstock is further bolstered by the results of our Resource Assessment Survey that we had conducted last October 2008 and the Calorific Test Results which showed the high heating values of these feedstock. The feedstock covered are the rice straws, rice husks, woodchips, sugarcane waste or trash, bagasse, coconut shell and husks.

AOPC targets to start commercial operation by 01 January 2011. By this time the PSA between the National Power Corporation (NPC) – the country's largest power producer owned by the government, and the ECs would have expired. Our Company will be replacing almost 30% of the power supply vacuum that will be left by the expiration of the NPC-EC Contract.

The signing of Renewable Energy Act No. 9513 has ushered additional economic gains for the project due to its attractive incentives, e.g. 7 year income tax holiday, duty free importation and tax exemption for Carbon Credit Revenues. This will further enhance the expected return on the invested capital especially with the inclusion of an estimated annual 78,000 tons of CO2 reduction (1.56 Gt CO2 over 20 years) via the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 Name	Waste to Energy Initiative involving Clean Energy Base Load Power Plant Project
Location	Panay – Guimaras - Negros Regions (Western Visayas Region 6)
Installed Capacity	114MW
Annual Electricity Generation	684, 087, 552 KWH
Plant Type	Regenerative Cycle Steam Turbine Power Plant
Commercial Operations Date	January 01, 2011
Plant Life (Years)	20 Years
Construction Period	12 Months
Fuel	Biomass
Electricity Tariff	US \$ 0.12 per KWH
Total Project Cost	US \$ 285.0 Million

The Project is scalable under the following Phases of Project Implementation

Phase	Initial /Additional Installed Capacity (in MW)	Total Installed Capacity (in MW)	Project Cost
I	114	114	US\$ 285M(Php 13.68B)
II	45	159	US\$ 112.5M(Php 5.40B)

- 하기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부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광산투자 프로젝트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의 신뢰성과 KOTRA 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1

Area Coverage	1,603 hectares
Mining Tenement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5 VI
Date File	November 5, 2007
Location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Commodity	Gold, Copper, Silver, etc.
Ore Analysis	7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Locator	Ms. Susan P. Lim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2

Area Coverage	1,235.25 hectares
Mining Tenement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3 VI
Date File	October 1, 2007
Location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Commodity	Gold, Copper, Silver, etc.
Ore Analysis	4.5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Locator	Mr, Quirico G. Pe

- 하기 프로젝트는 필리핀 대표 투자 컨설팅 Firm (Private Equity Adviser) 인 Argosy 사와 협력, 제공하는 FDI(직접투자)분야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 신뢰성과 KOTRA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 (Magnetite/Iron/Ferronickel Opportunities)

- Miner 'Code Name' is a private mining company with projects in Leyte, Philippines

Controls 40,000 ha of claim applications (two large mining permits just granted).

Completed 33,440 meters of drilling in 3,597 holes. Reserves of 10 million tons of measured and 192 million tons of indicated recoverable magnetite concentrate (> \$100 Billion).

- Miner is working on three independent but synergistic projects:

Magnetite sand mining and magnetite concentrate processing;

Sponge iron production and downstream conversion to steel and vanadium; Ferronickel production.

- All projects require:

Little capital and exhibit very low operational costs (bottom 25%). Profitable at the lowest iron and nickel prices over the last 10 years. Estimated revenue of \$244 million in Stage1 and \$ 2 billion in Stage2 and pretax profit of \$149 million per year for Stage 1 and \$1.2 billion for Stage2.

- Miner obtained rights to 50% JV over decommissioned cement plant

With minor modification will be used to produce Sponge Iron and Ferronickel. Consequently, capital costs kept to a minimum.

- Ferronickel Operation

Two lines allocated (lines 1 & 2). Line 1, 90% rehabilitated, Price is \$890 (5.3% Ni) and cost is \$339 per ton, Can make money even if ferronickel price goes down to \$200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3,271 per ton and lowest \$574 per ton.

- Sponge Iron Operation

Price is \$350 and cost is \$247 per ton, Can make money even if sponge iron price goes to \$190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800 per ton and lowest \$200 per ton.

- Significant upside on downstream Operations

Three million steel productions for local market in a Stage 2 integrated steel and vanadium operation using low cost geothermal power generated near to the magnetite production area. Cash costs amongst lowest in world – significant vanadium byproduct credits

- A low risk brownfields restart, not a greenfields start-up:

INCO was exporting 1 million tons/year and was highly profitable;
Operations closed in 1975 due to ban on beach sand mining;
Restart due to new Mining Act and growth in worldwide demand.

- Favorable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Low population density and economically depressed area;
Mining process is simple, no chemicals. Land is restored to a better condition within a 6 month period; Crop yields increase and farmers generously compensated.

- Economic Factors: (November costs and prices)

Mining/processing cost in lowest quartile on world cash cost curve(\$15/ton). Current price is \$47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was \$75 per ton and the lowest \$19 per ton. Magnetite concentrate production rate per year of up to 10 million tons is practicable; Off-take agreement for initial supply of 1.2 million and up to 3.6 million tons for export and 1.0 million for domestic processing.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소 Project

- The opportunity is to partner with a local company in deploying highly efficient, clean coal-fired power plants to niche markets in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is already experiencing power shortages and the situation is expected to get worse over the next years.
- The local company has preferred access to large amounts of affordable domestic coal. Using coal to generate electricity is by far cheaper than using oil, bunker or diesel. Domestic coal is 30% cheaper than imported coal.
- The local company is in the process of deploying highly efficient, coal-fired power plants to niche markets with no access to vi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poorly served by the grid. These niche markets are highly profitable and its relative small size will not attract significant competition from major power players. The objective is to deliver at least 500MW in the next 3/4 years.
- Partnering with the local company will generate significant competitive Advantages Secure long term coal supply. Low power generation costs. The local company will price the coal to offset any potential inefficiency from smaller coal power plants. Secure affordable financing. Smooth and fast approval of power projects.
- The local partner is currently working on two deals with an IRR of 24% to 46%.

▣ 전문가 칼럼

필리핀 수출입 물류 ABC: 발생 비용, 루트와 품목별 수출입 승인

필리핀을 상대로 수출입을 하는 업체들이 필자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A라는 품목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입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물류비용, 관세, 통관비가 얼마나 되는가 또는 반대로 필리핀에서 한국 및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물류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한 것이며, 추가로 그러한 품목의 수출입에 필리핀 정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들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수출입물류 비용이 제품가격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원가 중 하나며, 수출입물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갖고 있어도 상당한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수출입업자 사이에 어떤 조건으로 물건을 수출입할 것인지 결정한 후 만약 CIF MANILA로 계약을 했다면 한국의 수출자는 마닐라항에 도착까지의 해상운임을 한국 물류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며, 필리핀의 수입업자는 마닐라항에 도착한 후부터 수입통관 및 관세/세금납부, 수입업자 창고까지의 운송을 마닐라에 있는 물류업체에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2008.1.1일부로 양국의 상품부문에 있어 FTA가 시행되고 있으니 관세청에 문의하여 수입품목이 FTA 적용 품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FTA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품목이면 한국 관세청에 AK FORM(AK원산지증명서)을 발급받아 마닐라 세관에 통관 시 통관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설사 FTA를 적용 받는다고 해도 수입관세(IMPORT DUTY)를 면제 또는 감면 받는 것이며, 12% 부가세는 여전히 납부하여야 하고 이 부가세는 CIF MANILAG가격에 IMPORT DUTY를 더 한 금액의 12%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관에 관세, 부가세 납부가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 마닐라 항만 및 해운사에 PORT CHARGE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 물류업체가 대납하고 청구서에 일괄적으로 포함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벌크의 화물의 경우 ARRASTRE라는 화물의 무게 및 사이즈 별로 마닐라 항만의 HANDLING CHARGE가 있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요율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부두사용료(WHARFAGE)가 있는데 PEZA에 등록된 업체들은 이의 납부가 면제되며, THC라는 TERMINAL HANDLING CHARGE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여기에 통관서류 HANDLING을 위해 통관업자가 청구하는 여러 비용이 있으며 BROKERAGE FEE라는 관세사 비용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관세청의 조례로 화물의 INVOICE VALUE에 따라 정해진다.

상기 비용들이 필리핀으로 수입화물 통관 시 발생하는 비용들이며 끝으로 마닐라 항에서 수입자의 창고 혹은 공장까지의 육상운송 트럭킹 비용이 있다. 컨테이너 종류별로 화물

의 무게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고 정해진 육상운송비용이 발생하며, 간혹 컨테이너 샷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기도 한다. 마닐라항에 도착한 화물은 DEMMURAGE 와 STORAGE 모두 통상 도착일을 포함 5일간의 FREE TIME이 주어진다.

DEMMURAGE는 해당 컨테이너를 제공한 해운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이며 STORAGE는 마닐라 항만의 CY(컨테이너야드) OPERATOR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창고나 공장에 DELIVERY 된 컨테이너는 즉시 화물을 꺼내고 RETURN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 이들이 경과 하고 나면 해당 해운사에서 컨테이너 DETENTION CHARGE를 청구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사전에 물류회사를 통해 해당 해운사와 합의 후 컨테이너를 보관해야만 한다.

필리핀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는 수입과 정반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수출통관면장을 HANDLING하는 관세사에 지급하는 BROKERAGE FEE는 IMPORT BROKERAGE FEE의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해당 품목 수출 시 사전수출 승인품목인지 확인 후 관련 수출승인서류를 미리 준비해야만 한다. 만약 코코넛을 수출하려면 필리핀의 PCA(Philippine Coconut Authority)에 등록된 수출업체 만이 할 수 있으며 필리핀산 돌이나 나무 등을 수출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승인을 별도로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한 한국으로 수출 시 포장단위로 나무로 만들어진 팔레트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나무 팔레트는 검역(Fumigation)을 받아야만 한국의 세관에서 별도의 과태료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현재 마닐라에서는 한국의 부산/인천/광양/평택항으로 컨테이너 서비스가 가능하며 필리핀의 세부/다바오등은 마닐라까지 컨테이너 운송을 한 다음에 마닐라에서 한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에 환적하는 경우와 다바오 등지에서는 대만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해운사가 활동하고 있다. 마닐라에서 부산까지의 해상운송 기간은 직항인 경우 약 4일이 소요되고 대만 경유 선사는 약 8-10일의 해상운송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된다. 수출입 통관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2-3일이면 충분하며 필리핀에서도 대부분의 선하증권은 SURRENDER 처리하여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도 사본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물류비가 수출입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바 수출입전에 물류전문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FTA 시대에 가장 경쟁력있는 물류서비스와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담 시에는 해당 품목의 정확한 HS CODE NO. 와 INVOICE & PACKING LIST를 가지고 상담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장은갑 자문위원
APEX 대표이사,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필리핀에서 토지거래 시 유의사항: 등기확인과 기타 유의사항

필리핀에서 토지거래에 있어 등기부등본 위조에 따른 사기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전산화되지 못한 정부의 토지 관리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하는 브로커 들과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매매 및 임차계약 전 매도자의 TCT(등기부등본)를 직접 메트로마닐라, 퀘손시티, East Avenue 에 있는 LRA(Land Registration Authority, 토지등기청)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LRA는 필리핀 최대 등기부등본 보관소로 이곳을 방문하면 손쉽게 TCT 의 과거 소유권 이전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BLM (Bureau of Land Management, 토지관리국)은 토지이전 등기에 관한 위조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우선, 원본의 첫 등기 일자, 원본의 등기번호 (Registration Book No.) 등기절차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 년도, 등기 행정부서, 해당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소한 오타나 인쇄상의 실수도 TCT 진위 여부 판단에 작용할 수 있고, 소유권 법적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한 개인이 토지나 콘도미니엄 등을 취득한 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해당 물권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 완료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즉, 해당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시청이나 구청 등의 Register of Deeds(등기과)에 TCT 나 CCT 원본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매수인이 Contract to Sell 에 (매매계약서) 서명을 했다 해도 매도인 혹은 개발업자는 소유권을 곧바로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즉,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모든 대금을 지급하고 (분할상환 역시 마찬가지다)난 후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때, 가장 조심할 사항은 매매계약을 하고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매도인 혹은 개발업자가 이기간 중 제3자와 이중계약을 할 수 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권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매도인이나 개발업자가 은행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해당물권을 압류함은 물론이다.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이 개발업자에게 상환할 모든 대금결제를 완납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TCT 뒷면을 보면 첫 페이지에 Description of The Land(해당토지의 면적 및 지번 등이 기재)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Memorandum of Encumbrances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저

당 및 담보권 설정 내역을 보여준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살펴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다.

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의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매수인은 인지세, 이전세,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매매계약서에 관련 세금 납부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때로는 계약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모든 세금을 떠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매이전 매도인이 부담해왔던 부동산세금(Real Property Tax, 재산세라고도 하는데 분기별 납부), 즉 재산세에 대한 지급부담 역시 소유권 이전으로 전가되는데, 간혹 이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매수인이 점검 해야 할 사항으로는 측량분야가 있다. 이는 경계구역을 확실히 함으로써 인접해있는 타인들과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차단키 위한 중요한 절차다.

반드시 매입이전에 공인된 측량기사(Geodetic Engineer)를 통해 실제 측량을 함으로써 물권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없이 건축물을 올리거나 개발공사를 시행했다가 복잡한 분쟁에 빨려들 수 있다. 측량수치들이 TCT에 적혀있다 하더라도 타이핑의 실수, 측량기사의 부주의, 기타 다른 등기실수 등에 의해 해당물권의 면적이 적거나 크게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이나 개발업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웃들과 점유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제이박 자문위원
필브릿지 대표이사

▣ 경제 단신

필리핀 10년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100억불 투자

- 2009.6월부터 발효되는 재생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부여 법안 등을 활용, 향후 10년간 100억불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발표
- Reyes 에너지부 장관은 동 계획을 통해 현재 4,500M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capacity를 10년내 9,000MW까지 증가시키겠다고 언급
 - 이를 통해 현재 필리핀 전체 전력생산의 33%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대로 높인다는 목표임.
 - 에너지부는 필리핀 내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200,000M에 달한다고 밝혔음.
- 이미 국내외 15개사가 프로젝트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로, 특히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분야에 투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참여 예정기업중 가장 많은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은 필리핀 석유공사 자회사인 PNOC-Renewables Corporation이며, 기타 First Gen Corporation, Aboitiz Power Corporation, Energy Development Corp, Oriental Energy, Green Power Philippines, Deep Ocean Philippines 등이 참여를 검토중임. (Manila Bulletin, .5.29)

마닐라 시내, 정유사 등 중화학업 지속 허용키로 결정

- 2006년 시행된 법령 8119(Ordinance 8119)는 마닐라시내의 모든 중공업체가 7년 내 시를 떠나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그 동안 외국 투자기업 등 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왔음.
- 5.28일 Lim 마닐라 시장이 승인한 법령7177(Ordinance 7177)은 법령 8119를 무효화하고, 마닐라시내의 정유사 및 중공업체의 운영을 보장. 그러나 Pandacan 유류 저장단지 위험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지적.
 - 미국 9.11사태후 Pandacan 저장단지가 테러 등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법령 8027(Ordinance 8027)이 승인된바 있으며, 안전을 위해 동 시설물이 시외로 이전 되어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존재 (Business World 5.29)

한국기업, 필리핀 바이오연료 플랜트 건설에 4.75억 달러 투자 계획

- Agbon 필리핀 농업개발공사(Agricultural Development & Commercial Corp.) 사장은 5.30~6.2일, Arroyo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국기업들이 필리핀 내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위한 MOA를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
- 이중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국 에코솔루션과, 협력사인 에코 글로벌 바이오 오일스가 South Cotabato, General Santos지역에 100,000리터/일 의 바이오디젤 생산 플랜트 건설 위해 1.7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
 - 에코솔루션사는 동시에 100,000Ha 부지에 자트로파를 경작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11,000Ha 부지에서 경작 진행 중.
- 2006년부터 시행된 바이오연료 법안(Republic Act No.9367)에 따라 기존 바이오디젤 혼합 비중이 기존 1%에서 2%로 증가, 바이오 디젤 수요도 1.1억~1.3억 리터(연간)로 급증했음. (Business World 5.29)

일본 Sumitomo Metal Mining사, 내년도 30억 달러 규모의 니켈가공공장 건설

- Sumitomo Metal Mining사의 필리핀 현지법인인 Nickel Asia Corp사가 추진해온 대형 니켈가공공장 설립건이 내년도 준공 개시 예정
 - Sumitomo Metal Mining사는 전년도 동 공장 건설에 17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었지만 광물기대생산량이 연간 30,000톤에서 45,000톤으로 증가하면서 투자액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
- Surigao del Norte, Claver지역의 1,000Ha규모 광산에서 생산되는 니켈이 동 공장에서 가공될 예정이며, 4천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Business World 5.29)

NGCP & Siemens, Tarlac 지역 송변전 프로젝트 완료

- Siemens사는 Tarlac, Concepcion지역에 230KV급 변전소 완공. 동 변전소는 필리핀송전공사(National Grid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 NGCP)가 소유
 - Siemens사는 NGCP의 기술파트너로 'North Luzon Upgrade Project' 1단계 사업에 참가, 100MVA 파워 변압기 조립, 설치, 운영을 수행.
 - 동 변전소는 북Luzon지역 가정과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임.
(Business World 5.29)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기업 등록 및 감독위원회),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무역산업부) 산하로 이전**

- 5.27일 Arroyo 필리핀 대통령은 SEC를 기존 DoF(Department of Finance; 재정경제부) 산하에서 DTI로 편입시키는 행정명령 No.800을 발표
- SEC는 전년 Legacy Group of Companies의 보험사, 은행의 파산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왔음.
- 필리핀 정부는 DTI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SEC 흡수시 기업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Business World 5.29)

▣ 투자진출 A to Z

필리핀 내 고용관련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필리핀 내 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고용 관련 3대 보험에는 SSS(Social Security System), Philhealth(의료보험), Pag-ibig(주택연금)이 있습니다.

- Social Security System

SSS는 미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따온 것으로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총 급여의 10% 정도를 납부케 됩니다. SSS 납부 대상은 자영업자, 법인, 근로소득자로, 고용주가 70%, 피고용인이 30%를 납부합니다. (www.sss.gov.ph 참조)

- Philhealth

의료보험 제도로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이 관리합니다. 납부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www.philhealth.gov.ph 참조)

- Pag-ibig

Pag-ibig 주택연금이라 할 수 있으며 Home Development Mutual Fund 가 관리합니다. 조성 기금은 주로 장기저리 주택대출 등에 활용되며, 급여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www.pagibigfund.gov.ph 참조)

▣ 주요 경제 지표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 성장률	2.96	4.43	4.52	6.18	4.97	5.37	7.2	4.6
GDP(US\$10 억불)	72.0	78.0	79.6	86.7	98.4	116.9	135.6	145.9
GNP(US\$10 억불)	76.8	83.1	85.4	93.4	106.7	127.8	157.6	186.4
1 인당 GDP(US\$)	905	970	977	1,038	1,153.8	1,344.7	1,629.2	1712.4
1 인당 GNP (US\$)	978	1,034	1,050	1,118	1,251.2	1,470.0	1,777.0	2,061.0
수 출 (US\$ 10 억불)	32.3	35.0	36.2	39.6	40.5	46.2	49.4	49.1
수 입 (US\$ 10 억불)	29.6	33.5	37.4	40.3	47.7	53.1	55.9	56.7
연평균환율 (미\$:페소)	50.993	51.604	54.203	56.040	55.085	51.314	46.55	44.47
소비자물가 (%)	6.1	3.1	3.1	6.0	7.6	6.2	2.8	6.2
실업율 (%)	11.1	11.4	11.4	11.8	8.7	7.9	7.3	7.7
산업 구조								
- 농수산업 (%)	14.9	14.7	14.5	15.2	14.3	14	14	14.1
- 2 차 산업 (%)	32.4	32.5	32.3	31.9	32.2	32	31	31.7
- 서비스업 (%)	52.6	52.8	53.2	52.9	53.4	54	55	54.2
해외근로자 송금액 (US\$ 10 억불)	6.0	7.2	7.6	8.6	10.7	12.8	14.5	16.4f
외 채 (US\$ 10 억불)	51.9	53.6	57.4	54.8	54.2	53.4	54.9	5.39f
대외채무의 GDP 비중(%)	72.9	69.8	72.5	63.7	55.1	45.4	38.1	31.95f
외환보유고 (US\$ 10 억불)	15.7	16.4	17.1	16.2	18.5	22.96	33.75	36.04

환율동향

	2007년	2008년		2009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페소/ 달러	45.93	48.75	48.88	47.35	47.59	48.54	48.21	47.58
원/ 달러	9353	1397.3	1375.6	1354.7	1433.8	1460.09	1340.80	1260.41
페소/원	20.39	28.54	28.82	28.81	30.28	30.24	27.97	26.63

▣ 해외투자진출 관련 안내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 안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외투자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12월 해외진출정보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OIS내 '필리핀비즈니스 클럽(온라인 커뮤니티)'을 운영하고 있는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및 정보공유를 바랍니다.

- **주요제공정보:** 투자뉴스, 투자자료실, FAQ, Q&A 등
- **커뮤니티이용방법:** 홈페이지(www.ois.go.kr)에서 커뮤니티(카페명: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에 접속하고 커뮤니티 가입 후 정보 이용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변호사 무료 상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해외투자진출 기업 및 기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진출 관련 제도 (법률, 노무, 세무) 및 경영 애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에 의한 내방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바 필리핀 진출 기업 및 진출 추진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주 1회(**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 업체에 한해 센터 내 고문변호사와 대면 상담
- 이메일: hanskim@kotra.or.kr
- 연락처: +63-2-893-3244,1183

무역투자 정보포탈 (Global Window) 안내

KOTRA는 한국기업의 무역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전세계 국가에서 무역관이 수집한 정보를 Global Window(www.globalwindow.org)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 해외진출정보를 제외한 일반 통상 비즈니스 정보를 국별(필리핀 등)로 검색 가능합니다.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필리핀 투자뉴스의 지난호를 보시기 원하시는 경우 상기 안내드린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 / '필리핀 투자뉴스' 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신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